북스

Books

문학작품속 철학, 그 독특한 맛

철학 카페서 문학 읽기

김용규 지음

'문학'을 통해 철학을 이야기하는 카페가 열렸다.

주인장 김용규씨는 '파우스트' '당신들의 천국' 등 문학 작품을 소재삼아 '철학'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카페를 오픈하며 정씨는 작품에 대한 정보부터 교양이 될 만한 각종 주제, 철학적 해석까지 다양한 맛과 향으로 메뉴판을 짜 놓았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나 카페라떼를 골라 마시듯, '철학 카페'를 찾은 사람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적당한 메뉴를 골라 즐기면 된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들려오는 요즘엔 쉽게 풀어쓴 인문학 서적들이 인기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김 씨 역시 '지식을 위한 철학 통조림', '영화관 옆 철학카페' 등 인문학과 영화를 철학과 잘 버무린 '재미있는 철학서'로 인지도를 높인 작가다.

대화체로 쓰여진 책은 재미있게 읽힌다. 책에 등장하는 문학작품들을 이미 접한 독자라면 재미가 더하겠지만 읽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친절하게 줄거리를 풀어가며 철학적 설명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책에 등장하는 작품은 모두 13편으로 질투, 일상, 만남 등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을 풀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의 '오셀로'는 '질투'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고 자살하는 오셀로는 '질투'라는 덫에 빠져 파멸한 인간이다. 간악한 이아고는 "장군님, 질투를 주의하소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농락하는 초록눈(green eyes)의 괴물"이라고 말하지만 오셀로는 이미 "독약으로 내장을 쥐어 뜯는 것 같은 질투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살인을 저지르고 만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질투 없는 사랑이 있을까' '사랑 없는 질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랑' 때문에 항상 허기를 느껴 간장게장에 집착하는 '그녀'와 그녀의 사랑에 질투를 느끼는 '그'의 이야기를 다룬 권지혜의 소설 '꽃게무덤'과 플라톤의 '시학',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구절들 역시 '사랑'과 '질투'의 본질적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다.

최인훈의 '광장'과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유토피아'와 우리가 결코 꿈꾸지 않지만 운명처럼 닿게 되는 '디스토피아'를 풀어내는 소재다.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제 3국을 택하고 결국 '푸른 광장'을 찾아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는 '광장'의 주인공 명준의 인생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가 진정한 삶의 공간'이라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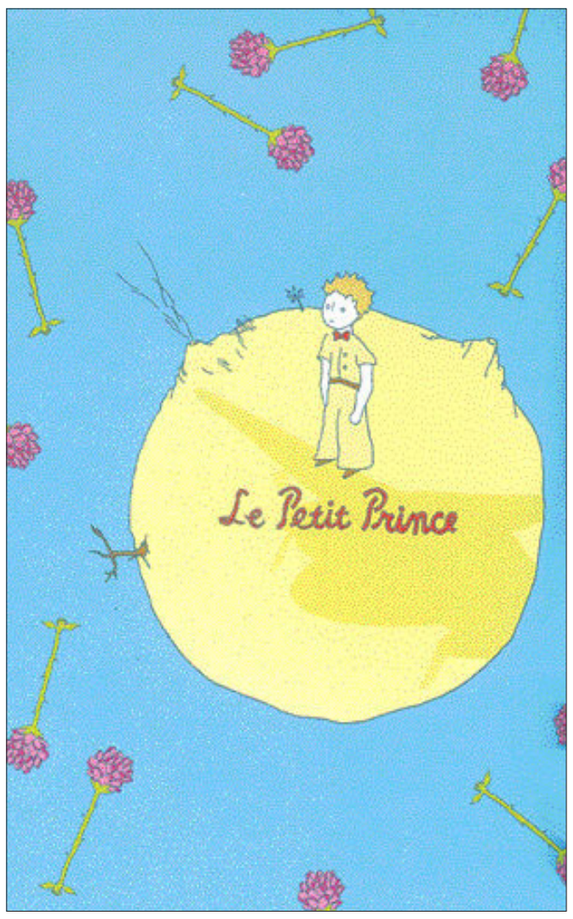
그밖에 '파우스트'를 통해서는 '자기 체념'과 '자기 실현'을, '데미안'을 통해서는 '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가정'의 의미를 묻는 카프카의 '변신', '일상'과 '권태'를 논하는 '구토'와 '고도를 기다리며' 등도 만날 수 있다.

좋은 책의 요건 중 하나는 '또 다른' 책읽기를 권유하는 것이겠다. 이 책은 예전에 읽었던 책은 다시 한 번 들춰보게 만들고 '이름'만 알고 있던 책은 한번쯤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천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우스트'서 '당신들의 천국'까지 13편

질투·일상·만남…다양한 주제 풀어내



셍텍쥐베리의 '어린왕자'는 '나-너 관계 맺기'라는 주제를 풀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타짜 2부 '신의 손' 단행본 5권 출간

허영만의 만화 '타짜 2부 신의 손'(전 5권)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2부는 최근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한 '타짜 1부 지리산 작두'(전 4권)의 속편 성격을 띤다. 출판사 측은 4부 22권을 모두 단행본으로 낼 계획이다.

2부에서는 전편의 주인공인 고니의 조카 대길이 등장해 화투 세계에 빠져들며 겪는 인생 역정이 펼쳐진다. 만화평론가 박인하 교수의 리뷰를 통해 타짜가 한국 만화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짚었다. '초보자를 위한 화투 기본기', '재미로 읽는 화투 이야기', '명대사·명장면' 등이 추가로 실려있다.

〈랜덤하우스·각 권 8천500원〉

지구촌 변방, 삶과 죽음의 경계서 '절망 허물기'

아름다운 응급실 조너선 캐플런 지음

"장 안은 회충으로 꽉 들어차 있었는 데 얼마나 빽빽이 들어찼는지 서로 꼬인 몸을 풀기도 힘들었다. 나는 마스크 뒤로 헛구역질을 하면서 절개한 부분 안으로 고리를 넣어 그 녀석들을 끄집어냈다. 이렇듯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족해 생명을 위협받는 곳이 아프리카였다."

외과의사이자 저널리스트인 조너선 캐플런(Johnathan Kaplan)이 쓴 '아름다운 응급실'은 터키,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세계 각국 오지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다.

남아공의 유복한 의사집안에서 가업을 잇던 그는 우연히 내전 중인 터키 쿠르드족 게릴라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전장(戰場)에서 부상자들과 난민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한다.

내전 중인 터키에서 총상을 입은 어린 소년은 그가 집도하는 중에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꽃다운 생을 마감한다.

그는 "나는 아무 소용없지만 절개 부위를 작게 몇 땀으로 봉합했는데, 그것이 내가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고 울음을 터뜨린다.

저자는 내전으로 삶터가 사라진 한 가족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터키군 막사에서 야전침대를 훔치는 등 난민들을 보살핀 일화도 소개한다.

그러나 '가장 뿌듯했던 것은 야전천막을 훔친 것이었다'며 전쟁의 참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의 현실을 가슴 아파한다.

그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아공, 브라질에서 직업병과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나미비아를 비롯한 미얀마, 에리트레아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친다.

전쟁터에서 벗어난 저자는 항공의사로 변신한 뒤 의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세계 각처를 방문하면서 겪은 이야기도 진솔하게 풀어낸다.

극한의 상황에서 숱한 사람들을 구하고 또 잃어온 그가 도달한 결론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음과 절망에 대항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그 극단에 서면 결국 의술이란 삶의 최전방에서 계속되는 전투고, 개별전투에서의 승리는 잠시 숨을 돌릴 여유에 불과하다." 〈서해문집·1만2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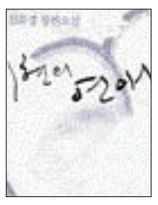
▲클레피, 희망의 기록=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유대 소년들이 만든 비밀 신문 '클레피'에 얽힌 희망과 열정, 저항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집이다. 저자 캐시 캐이서는 평범한 소년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시련을 재조명한다. 〈푸르메·9천원〉

▲이기적 유전자=진화생물학 분야의 대가인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이다. 그의 대표작이 출판 30주년을 기념해 재출간됐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며, 그 기계의 목적은 자신을 창조한 주인인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을유문화사·1만5천원〉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건축가 민현식이 '건축'이라는 도구로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을 질문한다. 건축가 승효상의 '웰컴시티', 김영준의 '허유재 병원', 최문규의 '쌈지길' 등 19가지의 한국 현대건축을 살펴보며 한국 건축사의 성취를 보여준다. 〈돌베개·2만3천원〉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단지 '경유지' 역할로만 인식됐던 실크로드에 대해 조명한다. 중앙아시아 학회가 역사, 언어, 고고미술 등 각기 다른 분과의 연구자 200여명을 중심으로 10여 년동안 살펴본 역사 교류 현장의 밀착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사계절·1만5천원〉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여행=국내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여행작가협회가 우리나라의 보석같은 여행지를 발굴해 책으로 엮었다. 가족 여행을 비롯해 전통술 기행, 영화 촬영지 기행, 사찰 기행, 자동차 기행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소박하고 정겨운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소개한다. 〈열번째행성·1만2천원〉



▲이현의 연애=제7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등단한 작가 심윤경이 첫번째 장편 '달의 제단' 이후 선보이는 장편 소설이다. 영혼을 보는 신비한 여자 이진과 전도유망한 엘리트 공무원 이현의 치명적인 사랑이 펼쳐진다. 〈문학동네·9천500원〉

▲조선여인 잔혹사=외면돼왔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을 짚어본다. 소설가 이수광은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추적한다. '조선왕조실록' '흠흠신서' 등에 나타난 18가지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의미를 짚는다. 〈현문미디어·1만2천원〉

▲색깔의 수수께끼=이 세상에 색깔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서프라이즈 정보팀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생활 속의 '색깔'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얼룩말의 얼룩 무늬가 온도 조절을 한다', '로마 군인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 립스틱과 매니큐어를 발랐다' 등 흥미미진한 사실이 공개된다. 〈비채·9천900원〉

▲시인을 위한 물리학=물리학 교수 울프 다니엘손이 어렵게 느껴지는 물리학을 철학과 문학을 통해 재미있게 전달한다. 간단한 수식조차도 등장하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의 물음부터 초끈 이론 등 현대 물리학의 최신 이론까지 난해한 물리학 이론을 이야기한다. 〈에코리프트·1만5천원〉